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❸ 선승의 태몽



▶한줄요약
선승의 전생을 알려주는 태몽은 생을 거듭해서라도 깨달음을 얻겠다는 맹렬한 다짐과 간곡한 서원을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 선승의 탄생을 예견한 태몽

### 3. 불보살의 계시

선승 태몽은 민속 태몽의 자장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되면서, 다른 한편 부처님 태몽과 탄생담을 수용했다. 또 불보살의 계시를 통해 선승의 탄생에 더 큰 불교적 의미를 담았다. 무염(無染, 800년 탄생)의 태몽에서는 하늘에서 긴 팔이 내려와 '연꽃'을 건네준다. 연꽃은 불교적 가르침을 대변하니, 그 잎과 꽃이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정(淸淨)'을 환기하고 '집착 없음'이나 '장엄(莊嚴)' 등을 뜻하기도 한다. 주로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있으니, '긴 팔'은 관세음보살의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건네주어 아기 선승의 잉태와 탄생을 계시한 것이다. 무염국사는 태어나자마자 합장을 하고 앉을 때는 가부좌를 튼다. 불상을 그리거나 모래로 불탑의 모양을 만들며 놀았다.

사명대사(泗溟, 1544년)와 영허대사(暎虛, 1792)의 태몽에서는 불보살이 직접 나투신다. 사명(泗溟)대사의 어머니는 황색 두건을 쓴 금인(金人)을 따라가서 부처님을 알현한다. 잉태될 아기가 부처님을 받들 것이란 계시를 받은 것이다. 과연 아이는 특별하여 모래를 쌓아 탑을 만들거나 돌을 세워 부처님으로 삼고 공양을 올린다. 영허(暎虛)의 어머니는 불상의 서기(瑞氣)를 본다.

불보살은 승려를 대리자로 보내기도 한다. 진철(眞澈, 870년) 어머니의 꿈에는 신승(神僧)이 푸른 연꽃을 전해 준다. 신승은 불보살의 연꽃을 전하는 대리자 노릇을 하면서도 장차 태어날 아이가 스님이 될 것을 암시한다. 법인(法印)의 태몽에서는 범승(梵僧, 행실이 단정하고 깨끗한 인도 승려)이 대리자 노릇을 한다. 그는 금빛 과자를 어머니에게 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경전 문구를 적은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인다. 원공(圓空)의 태몽에서는 흰 눈썹의 스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이는 대위덕명왕[아미타불의 변신]이니 잘 모시라"고 말한다. 그 말에 따라 어머니는 불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신채와 고기를 피하며 정성을 다해 태교를 한다. 원준(圓俊, 1530년)의 어머니에게도 한 스님이 찾아와 마니주를 건네준다. 마니주가 발산하는 빛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으로 인식되니, 마니주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환기한 셈이다. 혜암(惠菴, 1885년)의 어머니는 아기 배냇저고리를 만들 무명베를 전하는 노승이 부처님 대리자임을 알고 무명실을 공양물로 바친다.

대영(大英, 1903년)은 근대기 큰 선승이다. 그 분의 경우는 근대기에 들어오면서 불보살의 계시나 가피가 달라진 양상을 보여준다. 대영의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머리 없는 돌부처를 발견한다. 머리 부분을 찾아낸 아버지는 그것을 목 위에 올렸는데 약간 삐뚤게 되었다. 그래도 형상이 온전하게 된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 아이를 잉태한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개가 갸우뚱했고 성장한 뒤에도 머리를 똑바로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산이 좋고 그립다'는 말을 되뇌다가 결국 19세 때 설악산으로 출가한다. 대영의 이런 탄생담과 출가담은 꿈보다 현실에 다가가야 했던 근대기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선승의 탄생에 불보살이 관여하고 계시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 4. 전생 스님의 이생 부모 자식 되기

앞의 태몽에서 '범승', '신승' 등은 불보살의 대리자로 현몽했다. 이와 달리 자기 사연을 지닌 스님들이 선승 부모의 꿈에 나타나 그 자식이 되기를 서원하는 태몽도 적지 않다.

진감국사(眞鑑, 774년) 어머니의 꿈에는 한 범승이 찾아온다. 범승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며 유리항아리를 준다. 어머니는 그날 잉태한다. 아기 진감은 태어나서 울지를 않았다. '소리를 녹이고 말이 없는 도의 싹'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된다. 7, 8세가 되자 밖으로 나가 노는데, 나뭇잎을 향으로 삼고 꽃 공양을 올린다. 자주 서쪽을 향해 꿇어앉았다. 그럴 때면 해가 저물어도 꼼짝하지 않았다. 적인선사(寂忍, 785년) 어머니의 꿈에는 향로를 든 호승(胡僧, 북방이나 서역에서 온 승려)이 찾아와서 침상에 앉을

**사명·영허, 태몽에 불보살 나타나**
**선승 부모 꿈에 나타나 자식 서원**
**생 거듭해서라도 깨닫겠다는 다짐**

뿐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꿈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반드시 법을 지닐 아들을 얻어 마땅히 국사가 될 것이다"고 말한 점을 보면 그 호승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적인선사는 강보에 싸여 있을 때부터 다른 아이와는 달랐다. 소란스러운 곳에서도 시끄럽지 않았고 조용한 곳에서는 고요했다. 노린내나 비린내를 맡으면 피를 토하고 짐승 죽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한다. 앉을 때는 결가부좌를 하고 사람에게 예를 표할 때는 반드시 합장을 한다. 절에 가서 부처님 주위를 돌 때는 배우지도 않은 범패를 잘도 부른다. 이런 점 역시 전생에 호승으로서 닦은 수행과 관련될 것이다.

지증대사(智證, 824년) 어머니의 꿈에 찾아온 거인(巨人)은 좀 더 복잡한 사연을 말한다. "저는 옛 승견불(勝見佛, 과거 일곱 부처 중 제일 부처)의 말세에 사문(沙門)이 되었지만 화를 낸 까닭에 오랫동안 용보(龍報)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업보가 다하여 다시 법손(法孫)이 되려합니다. 묘한 인연에 의탁하여 자비로운 교화를 넓히기를 원하나이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뒤 400일이 지나서 대사를 낳았는데 그날은 부처님 탄생일이었다.



사명대사 진영.

꿈속의 거인은 한 번 화를 낸 업보로 용으로 태어나야 했고 그 업보를 다하여 다시 스님으로 태어나려 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 지증은 오신채와 고기 냄새 탓에 한동안 젖을 먹지 못하고 울면서 구역질만 한다. 낭공대사(朗空, 832년)의 어머니 꿈에도 한 스님이 나타나서 "숙세의 인연을 좇아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그 뒤로 비린내 나는 육류를 피하고 정성을 다해 태교를 한다. 아기 낭공은 보통 아이와는 다른 기이한 골상이었고, 아이들과 놀 때도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고 풀잎을 따서 향으로 삼았다.

법경대사(法鏡, 879년) 어머니도 어떤 사람이 "아들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한 태몽을 꾸었다. 홍법국사(弘法, 915전후)의 어머니에게는 승가의 모자를 쓴 호승(胡僧)이 찾아와, "어머니, 제가 연성벽(連城璧, 楚나라 卞和가 얻은 귀한 구슬)을 드리겠습니다"며 구슬을 배 위로 던지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 홍법은 12살이 되자 출가할 뜻을 부모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그 태몽을 생각하고 허락한다.

적연국사(寂然, 952년) 어머니 꿈에는 두 사람의 스님이 등장한다. 한 스님이 자주색 가사를 입은 다른 스님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와서 "이 스님은 부석사 태대덕(太大德) 스님입니다. 당신에게 입태(入胎)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고기와 오신채 등을 금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 적연은 그 울음소리가 이상했고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울었다. 당시는 오랑캐가 곳곳에 숨어 있다가 약탈을 일삼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이 우는 소리 탓에 오랑캐가 닥칠 것이니 아이를 먼 곳에 버리도록 요구한다. 부모가 아기 적연을 숲에 버렸는데, 그날 밤 부모와 마을 사람들의 꿈에 "이 아이는 7일이 지나 울음을 그칠 것이니 데려와 길러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숲으로 가보니 사슴 두 마리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으니 다시 데려와 길렀다는 것이다.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 1215년), 벽송선사(碧松, 1464년), 경헌대사(敬軒, 1542년), 소요당(逍遙堂, 1562년)의 태몽도 이와 유사하다. 꿈에 어머니를 찾아온 스님의 사연이 약간씩 다르고 하는 말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 근본 취지는 원종(元宗, 869년) 어머니의 꿈에 나타난 신인(神人)이 하는 다음의 말에 압축되어 있다. "원컨대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부처님의 법손이 되고자 하여 묘연에 의탁하여 공경하게 자비하신 교화를 펴려합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깨달아서 '부처님의 법손'이 되고 중생제도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근대에 가까이 올수록 이런 점은 달라지니, 비구니 도인 만성(萬性, 1897년)의 경우에서 그 점이 뚜렷하다. 만성의 태몽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태몽이 아예 없었거나 있었어도 전해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만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색을 즐기고 탁월한 총명함을 보인다. 여느 규수와 다름없이 일찍 결혼했으나 남편과 사별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가 방한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한다. 그런데 만성은 출가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기가 장삼에 가사를 두르고 법당 앞을 소요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만성이 스스로 꾼 이 꿈의 내용은 그 전생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장차 자신이 출가하여 살아갈 모습이 미리 떠오른 것이라고 하겠다. 근대 이전 선승의 태몽과 비교할 때 스님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부모의 꿈을 통해 전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꿈을 통해 그 모습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근대 이후 태몽의 요소가 약화되거나 없어지고 그것을 대신하는 부분이 새롭게 생성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선승의 전생을 알려주는 태몽은 생을 거듭해서라도 깨달음을 얻겠다는 맹렬한 다짐과 간곡한 서원을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태고종 종정을 지내신 덕암 스님(德庵, 1913년)은 한 승원 작가와의 대담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며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깨달으려고 〈아미타경〉을 부지런히 염송하곤 한다고 말했다. 한평생 치열하게 수행했어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아상을 내려놓은 스님의 겸허함을 본다. 깨달음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생을 기약하는 간절함을 읽는다. 이 간절함은 선승 태몽의 그것과 다름없다. 깨달음과 중생구제에 대한 수행자의 비원은 우리 선수행사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면면한 전통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선승의 태몽에 깃든 이런 숭고한 정신을 확인하면서 나의 수행 자세를 반성하고 통렬한 참회를 한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